

“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

■ 이종윤 원로목사

정치하는 이들이 당리당락과 사리사욕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꼴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때에 무명의 조선의원이 새 정치를 외치며 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올 때 제1야당은 물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까지도 긴장하고 있다.

구습은 허망하고 깨달음이 어둡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습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도 올해는 말띠해이니 말과 같이 뛰자는 목사님의 설교 아닌 선동이 있는가 하면 갑자년 운운하며 주님을 기점으로 한 월력은 다 무시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을 즐기자며 신년인사를 하는 교역자들도 많이 있다. 일간신문에 오늘의 운세 점괘가 어느 기사보다 많이 읽히고 점쟁이집 문턱이 성시를 이루는 오늘의 시대는 21세기 최첨단 사회가 썩어져 가는 유희의 구습을 따르는 옛 옷을 벗지 못한 옷기는 세상의 모습이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 과거에는 다른 이방인처럼 살았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이제는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해진 성별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

사람들은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은 무시해도 되는 줄로 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이 허망하기 때문에 총명(understanding)이 어두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서 허망한 생각이 욕심과 방탕에 빠지게 한다고 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생각은 허망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무질서와 죄악을 낳게 한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숭상해서 인간 이성이 육체를 구원한다고 믿었다. 물론 그들의 철학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는 이성을 좇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당신들 생각은 허망하다고 했다. 그들은 논리적 사고와 삼단논법을 구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철학과 도덕이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다. 최고의 지식과 문화수준을 자랑하는 현대인들이 마치 헬라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찾고 총명이 어두워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새해의 첫머리 설 명절을 구습을 좇아 한 해에 두 번씩 기리고 있는 이 백성의 총명(understandding)이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성도들마저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어져 아무리 가르쳐 줘도 여전히 민족 고유 명절을 버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공간의 세계에 살면서 시간의 세계와 항상 연결되어 살고 있다. 어떤 한 시점을 정해놓고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조망하기도 한다. 그 정해진 시점이 흔들릴 경우 모든 것이 흔들린다. 몇 주 전 주후2014년 새해 출발을 하고 이제 막 속력을 내려하는 차체에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창조의 날에 시간의 기점을 잡고 모든 일을 거기서부터 계산하고 시작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중국인이나 한국인도 천지가 개벽된 날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B.C.와 A.D.를 구분한다. 지금 온 세계가 공히 사용하는 AD월력을 사용하면서 율력설을 주장하고 지키려는 것이 구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뿐 아니라 새 사람과 옛 사람을 갈라 놓으셨다. 빛과 어두움,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 분을 기점으로 갈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이와 무신론자를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연을, 진리와 무지를, 축복과 저주를 갈라 놓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우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수의를 벗어버리듯 과감하게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자.

—한국장로신문 [1400호] 2014년 2월 1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 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Ephesians 5:1-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Reading	“Children of light I”	Presider
* Hymn	502	Congregation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원 교육목사 윤누가	교육전도사 주원순 강남희 최근영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프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홍우아 망 탕 켄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웅 차 짜우 미카엘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스뜨, 린툼 수란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산에 이금순 김병일 김덕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

■ 갈 5:1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을 슬로건으로 내건 개신교의 상징입니다. 1517년 10월31일,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 교황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텐베르크 성에 95 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95개조 반박문 제6조에서는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사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카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던 면죄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게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반박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인류역사가 중세시대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게 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은 정치 제도의 발전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제도 등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기 전에는 모두 죄와 죽음의 노예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노예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6). 그러므로 죄에 대해 자유인이 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갈 5:1).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도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자율성이 없고 타율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노예의 삶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은 자유인의 삶입니다. 타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유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예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 자유인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마틴 루터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전혀 읽을 수 없었고 교황, 주교, 신부 등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직접 읽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니면 저 말이 진리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예전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카톨릭 교회 신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고 터득함으로 내가 카톨릭 교회를 다닐 것인지, 개신교 교회를 다닐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마저도 스스로 선택하라” 고 말했습니다.

맺는 말
 종교개혁은 100, 200, 300년이 지난 후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 영국에서는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등 소위 근대시민혁명이 일어나 정치적 절대왕정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근대적 시민계층인데, 이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이미 자유로운 선택을 경험한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이 자유의 개념을 정치의 영역에 적용하므로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근대적 자유주의 시민의 종교적 호칭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 시민을 탄생시킨 종교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자유시장 경제제도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으로 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법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선한 일들을 하므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원리는 성경에서 출발하였고,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도들은 진정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자유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원리는 지난 500년간 인류 역사를 견인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이 기독교 정신이 지난 5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영적 압축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임상현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하인선 장로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38:2-3 인 도 자
 찬 송 67(31) 다 함 께
 기 도 이준호3 집사
 성 경 고전 16:13-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강건을 위하여 사랑의 향기" ... 설 교 자
 * 찬 송 354(394)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대상 16:28-2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5(시 4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1(2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렘 18:1-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박순오 목사
 (In the Hands of the Master Potter)
 * 찬 송 Hymn313(35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최미경 권사
 성 경 살전 4:13-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늘의 소망을 품고" ... 설 교 자
 설 교 서명철 목사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 · 흥해관김양안박수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 5: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 비전2020 기도회 / 5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 스데반회 11월 월례회 / 5일(주) 오후3시30분 101호
- 대치1동 경로잔치 / 10일(금) 오후12시 801호
- 정기당회 / 10일(금) 오후7시 가이오실

◆ 알 림

-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603호 예배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주일 오후 1시-2시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김봉배(통증의학과), 이종욱(진단검사의학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2. 박순오 목사 소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Westminster 신학교 수료 계명대학교 대학원 Ph.D. (실천신학) 전)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 현) 나눔과기쁨 상임대표 현) 전국 설교클리닉 대표강사 ◆ 결 혼 1. 최민준 군(12교구 최영철 집사, 차운순 성도의 막내)과 임성홍 양(임만규 씨의 막내) / 11월11(토) 오후6시30분 헤리츠 2층 / 아그니스홀(536-4000) / 7호선 학동역 하차, 3번 출구 앞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4명	229명	288명	1,421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9)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29일	헌금	54,828,600	
"	특별예배비		1,000,000
"	말씀봉사비		21,540,000
	찬양대사레비, 운영비		19,990,000
"	교회학교교육, 운영비		2,689,500
	출 판 비		270,000
"	지원교회		6,000,000
	소모품비		330,000
"	통 신 비		266,650
	차량유지비		288,600
"	복리후생비		40,000
	수도광열비		14,290
"	수선유지비		2,216,200
	급 여		39,624,000
	식당운영비		1,755,480
"	합 계	54,828,600	96,024,720